

李白의 <金陵與諸賢送權十一序>와 <春於姑熟送趙四流炎方序>역해

趙成千·趙得昌*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金陵與諸賢送權十一序(금릉에서 여러 현인들과 權昭夷를 전송하며 쓰노라)
 - 2.2 春於姑熟送趙四流炎方序(봄에 姑熟에서 趙炎이 남방 더운 지역으로 좌천되어 가기에 전송하며 쓰노라)
3. 해설 및 결론

1. 서론

현존하는 李白의 散文은 모두 67편(賦 포함)과 <雜題四則>이다.¹⁾ 그의 산문을 문체로써 보면, 書表序記, 頌讚銘碑, 祭文辭賦이다. 이백의 산문은 그의 삶과 사상을 고증하고, 시를 이해하는데 보조 자료가 되며, 그의 문학사상 및 예술세계를 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백에 대한 연구는 시 작품에 대한 연구 및 번역에 치중되어, 그의 산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어 학위논문으로는 1997년에 발표된 <李白散文研

* 乙支大學校 教養學部 助教授(主著者), 協成大學校 中國通商·文化學科 教授(交信著者 chodc38@nate.com)

1) 中華書局的 王琦注《李太白全集》에는 <比干碑>와 <雜題四則>이 따로 수록되어 있는데, <比干碑>는 <全唐文>에서는 李翰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究> 1편에 불과하며, 소논문 역시 희소한 편이며, 특히 연구의 기초가 되는 역해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중국의 경우,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는 校記·註釋으로 괄목할만하지만 국내 연구자들이 참고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에 필자는 이백 산문 전편을 역해하여, 국내의 이백 연구에 중요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동안 表3편, 書4편, 序4편 총11편²⁾에 대한 역해연구를 진행하여 완성하였다. 본고에서는 序에 대한 역해연구로 <金陵與諸賢送權十一序>·<春於姑熟送趙四流炎方序> 2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가 축적되어 결실을 맺는다면, 국내의 이백 산문에 대한 첫 역해 성과가 되고, 이백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원문, 校記, 번역, 주석, 해설의 형식을 취한다. 원문은 '宋蜀本'을 위주로 하고, 校記에서는 詹鏞 등의 기존 연구 성과를 수록하면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힌 것을 추가한다. 번역은 독자해석을 지향하되, 의미의 원활과 순통을 위해서 의역을 한다. 주석은 자구 풀이는 물론 관련 用例, 典故 등을 들어 그 원문을 제시하고 번역함으로써 학술성을 높인다. 또한 기존 연구를 수용하면서 연구자의 새로운 성과를 추가한다. 해설에서는 창작연대, 작품의 해제, 역대평론, 작품의 특성 및 예술성취 등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을 기본으로 하고, 王琦 注 《李太白全集》,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牛寶彤 主編 《李白文選》,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 및 郁賢皓 註釋 《新譯李白文集》 등을 참고로 한다.

2) 表3편: <爲吳王謝賁赴行在遲滯表>·<爲宋中丞請都金陵表>·<爲宋中丞自薦表>, 書4편: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上安州李長史書>·<與賈少公書>·<爲趙宣城與楊右相書>, 序4편: <暮春於江夏送張祖監丞之東都序>·<奉餞十七翁二十四翁尋桃花源序>·<夏日奉陪司馬武公與群賢宴姑熟亭序>·<江夏送林公上人遊衡嶽序>

2. 본론

2.1 金陵與諸賢送權十一序³⁾

(금릉에서 여러 현인들과 權昭夷를 전송하며 쓰노라)

斯高柄秦，嬴世不二⁴⁾；三傑伏草，與漢並出。⁵⁾ 莽夷朱暉，耿鄧乃起。⁶⁾ 自古英達，未必盡用於當年。去就之理，在大運爾。⁷⁾

- 3) 權十一: 이름이 昭夷, 十一은 할아버지가 같은 형제 중 항렬이 11번째. 생평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글에 의하면 權十一은 이백과 함께 단약을 만들었던 벗. 이백의 시 <獨酌清溪江石上寄權昭夷>와 <答高山人兼呈權·顧二侯>에도 언급되었다.
- 4) “斯高柄秦”이구: ○嬴: 秦始皇의 姓. BC 210년에 진시황이 남쪽 순방 길에 병사하였는데, 趙高가 주도적으로 모의하고 승상 李斯의 동의를 얻어 비밀에 부치고 發喪하지 않고 황제의 이름을 가탁하여 발표한 조서를 통해 胡亥를 태자로 세웠다. 咸陽에 이르러 호해가 황위에 즉위하여 二世가 되었다. BC 207년, 중승상 조고가 二世를 살해하고, 二世의 조카子嬰을 세워 秦王이 되게 하였다. 같은 해 유방이 秦을 멸망시켰다.
- 5) “三傑伏草”이구: ○三傑: 한나라의 개국공신 張良·蕭何·韓信. <史記·高祖本紀>에 “고조는 말하였다. ‘그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오. 군막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장량만 못하오.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식량을 대고 식량을 운송하는 길을 끊기지 않게 하는 일에서는 내가 소하만 못하오. 백만의 병사를 이끌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차지하는 일에서는 나는 한신만 못하오. 이 세 사람은 모두 인걸이오. 내가 그들을 임용할 수 있었다는 이것이 내가 천하를 가지게 된 이유요. 항우는 범증 한 사람만이 있었고 그마저 끝까지 믿고 쓰지 못했는데, 이것이 바로 나에게 사로잡힌 이유요(高祖曰: ‘公知其一, 未知其二. 夫運籌策帷帳之中, 決勝於千里之外, 吾不如子房. 鎮國家, 撫百姓, 給餽饗, 不絕糧道, 吾不如蕭何. 連百萬之衆, 戰必勝, 攻必取, 吾不如韓信. 此三者, 皆人傑也. 吾能用之, 此吾所以取天下也. 項羽有一范增而不能利用, 此其所以爲我擒也.’)”라고 하였다. 賈誼 <治安策>에 “고조황제께서 여러 공들과 더불어 기의하셨다(高皇帝與諸公並起.)”라고 하였는데, 삼걸이 한고조와 더불어 일어난 것을 말한다. ○伏草: 풀 속에 엎드려 있다.
- 6) “莽夷朱暉”이구: 王莽이 한을 찬탈하였는데, 耿弇·鄧禹가 일어나서 광무제를 보좌하였음을 말한다. ○莽: 王莽. ○夷: 멸하다. ○朱暉: 불이 말하는 붉은 빛 ○耿鄧: 東漢의 개국공신 耿弇·鄧禹, 이들은 광무제 劉秀를 도와서 천하를 평정하고 東漢왕조를 세워 漢朝를 중흥시켰다. 모두 제후로 봉해졌으며, 죽은 뒤 광무제는 耿弇·鄧禹 등 32명의 공신들의 초상을 南宮雲臺에 그리게 했는데, 鄧禹가 초상의 첫 번째에 있다. 두 사람의 傳이 <後漢書>에 있다. 漢代는 음양오행이 성행하여 木·火·土·金·水가 상생하는 순서로써 제왕의 덕을 배치시켰는데, 한나라는 火德으로 왕조가 세워졌다. 때문에 왕망이 한나라를 찬탈한 것을 “莽夷朱暉”라고 하였다.
- 7) “去就之理”이구: 군주에게 쓰임 받는 여부는 천운에 달려있음을 말한다. ○去就: 벼슬을

<校記>

[제목]: 《文苑英華》와 《全唐文》에서는 ‘權十一’ 아래에 ‘昭夷’ 두 자가 더 있다.

[朱暉]: ‘朱’가 《唐文粹》⁸⁾에는 ‘末’로 되어 있는데, 詹鐸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運爾]: ‘爾’가 《文苑英華》에서는 ‘耳’로 되어 있다.

李斯와 趙高가 秦의 국정을 장악하였지만, 嬴氏가 통치하는 진나라는 두 대를 가지 못하고 멸망하였습니다. 당시 張良·蕭何·韓信 세 영웅호걸은 초야에 묻혀 있었는데 한나라 劉邦과 함께 세상으로 나와 西漢을 세웠습니다. 王莽이 火德으로 세워진 西漢을 찬탈하자, 耿弇·鄧禹가 일어나 光武帝 劉秀를 보좌하여 천하를 평정하고 東漢을 세웠습니다. 옛날부터 뛰어난 사람들이 모두 당시에 쓰이지는 못하였으니 관직의 진퇴는 천운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我君六葉繼聖,⁹⁾ 熙乎玄風.¹⁰⁾ 三清垂拱,¹¹⁾ 穆然紫極.¹²⁾ 天人其一哉!¹³⁾

멀리 하거나 혹은 버슬을 하는 것. 進退. 《莊子·秋水》에 “화와 복에 대해 편안해 하며, 나아가고 물러남에 신중하다(寧於禍福, 謹於去就.)”라고 하였다. ○理: 도리, 규율. ○大運: 시운, 명운, 천운. 何晏의 《景福殿賦》에 “천운이 어그러지지 않은 바이다(乃大運之攸戾.)”라고 하였는데, 李善은 “大運은 天運이다(大運, 天運也.)”라고 주를 달았다.

8) 明 嘉靖本 《唐文粹》를 영인한 《四部叢刊》의 《唐文粹》.

9) 六葉: 唐朝의 高祖·太宗·高宗·中宗·睿宗·玄宗을 말한다.

10) 熙: 흥성하다. 《詩經·周頌·酌》에 “당시 큰 빛이 발할 때, 위대한 보필이 등장하였네(時純熙矣, 是用大介.)”라고 하였다. ○玄風: 도가의 청정무위의 사상기풍. 《世說新語·文學》에 “처음에 《莊子》에 주를 다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지만, 그 요지를 궁구하는 자가 없었다. 向秀가 전인의 舊注이외에 새롭게 뜻을 해석하였는데, 현묘한 뜻을 오묘하게 분석하여 현풍을 크게 흥성시켰다(初注《莊子》者數十家, 莫能究其旨要. 向秀於舊注外爲解義, 妙析奇致, 大暢玄風.)”라고 하였다. 《文選》 권31 江淹<雜體詩三十首·殷東陽仲文>의 “인을 구하는 것은 기왕에 나로부터 말미암았는데, 도를 어찌 밖으로부터 구하리오?(求仁既自我, 玄風豈外慕?)”에 대하여 李善은 “玄風은 도를 말한다(玄風, 謂道也.)”라고 주를 달았다. 王琦는 “玄風은 청정한 기풍이다(玄風, 清靜之風也.)”라고 하였다.

11) 三清: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의 경지인 玉清·太清·上清을 말한다. 여기서는 당 현종 시기 大明宮의 三清殿을 가리킨다. ○垂拱: 옷을 늘어뜨리고 팔짱을 끼다. 제왕이 무위로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를 형용. 《尚書·武成》에 “옷을 드리우고 팔짱을 끼고 있어도 천하가 다스려진다(垂拱而天下治)”에 그 용례가 있다.

所以靑雲豪士，散在商釣。¹⁴⁾ 四坐明哲，¹⁵⁾ 皆清朝旅人。¹⁶⁾

<校記>

[熙乎]: ‘乎’가 《唐文粹》에서는 ‘于’로 되어 있다.

[靑雲]: ‘靑’이 《文苑英華》에서는 ‘風’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본의 주석에서 “集에서는靑으로 되어 있다(集作靑)”라고 하였다.

[豪士]: 이 다음에 《文苑英華》에서는 ‘之’자가 더 있는데, 이 판본의 주석에서 “《集本》과 《唐文粹》에는 之자가 없다(集本文粹無之字)”라고 하였다.

12) 穆然: 고요히 깊이 생각하는 모양. 《漢書·東方朔傳》의 “이에 오왕이 묵연하였으니 머리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였다(於是吳王穆然，俛而深思.)”에 대하여 顏師古는 “穆然是 고요히 생각하는 모양이다(穆然，靜思貌.)”라고 주를 달았다. ○紫極: 紫極宮. 王琦는 “紫極은 왕의 거처이다(紫極，王者之居也.)”라고 주를 달았다. 《文選》 권10 潘岳 <西征賦>의 “공활하고 높은 자국이 싫증나구나(厭紫極之閑敞.)”에 대하여 李善은 “紫極은 별 이름인데, 왕이 사는 궁궐로 상징된다. 曹植이 表를 올려, ‘감정은 황궁으로 흐르고, 마음은 자국에 있다’고 했다(紫極，星名，王者爲宮以象之. 曹植上表曰：‘情注於皇居，心存乎紫極.’)”라고 주를 달았다. 당 현종 開元29년(741년) 長安과 洛陽에 老君廟를 세우고 玄元宮이라고 칭하였고, 각 州에도 사당을 세워 紫極宮이라 하였다. 이백의 시 <對酒憶賀監>의 序에서 長安의 老君廟를 “장안 자극궁(長安紫極宮)”이라 하였다.

13) “天人其一哉”일구: 天道와 人道の 합일을 말한다. 郁賢皓는 “고대 철학에서 하늘에는 뜻이 있고, 하늘의 뜻은 인간 만사를 지배하는데, 인간 만사는 하늘의 뜻을 감동시킨다. 이 양자가 하나로 합치되는 것이 ‘天人合一’이다”(《新譯李白文集》，三民書局，2017년，201쪽. 이하 서명과 쪽만 표시함)라고 하였다.

14) “所以靑雲豪士”이구: 이 두 구는 “천하가 태평성대를 이어가서, 세상을 구제할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牛寶彤，〈李白文選〉，學苑出版社，1989년，138쪽. 이하 서명과 쪽만 표시함) ○靑雲: 은일을 비유. 《南史·衡陽元王道度傳》의 부록 <蕭鈞傳>의 “몸은 권문에 있지만, 정은 강해를 떠돌고, 형체는 궁궐 안에 있지만, 뜻은 청운에 있다(身處朱門，而情遊江海，形入紫闈，而意在靑雲.)”에 그 용례가 있다. ○豪士: 호쾌하며 소소한 절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史記·遊俠傳》의 “노나라 사람들 모두 유자로써 가르침을 받을 때, 구가는 협객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가 숨겨주어 생명을 건진 호걸들은 100여 명이나 된다(魯人皆以儒教，而朱家用俠聞. 所藏活豪士以百數.)”에 그 용례가 있다. ○散在商釣: 시장 속에 숨어 있다가 아니면 강에서 물고기를 잡다. 王琦는 “商釣은 시장에서 숨어 있기도 하고 강에서 고기 잡기도 하는 사람이다(商釣，或隱於市，或漁於水也.)”라고 주를 달았다.

15) 坐: 座의 뜻. ○明哲: 현명하고 사리를 통찰하는 사람. 앉아있는 ‘諸賢’을 가리킨다.

16) 清朝: 청명한 조정 혹은 세상. ○旅人: 버슬하지 못한 채 사방을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백의 <與諸公送陳郎歸衡陽> 序의 “공자는 관직을 얻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고, 문양은 광명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었다. 진실로 그 때를 얻지 못하면 성현도 이와 같은 상황에 순응해야 했다(仲尼旅人，文王明夷. 苟非其時，聖賢低眉.)”에도 나온다.

우리 군주께서는 高祖를 계승한 이래 육대의 聖君이 되시어 청정무위의 교화에 빛나셨습니다. 大明宮의 三清殿에서 옷을 늘어뜨리고 팔짱을 끼고서 無爲의 정치를 펼쳤었는데, 紫極宮에서 고요하고 깊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정말 天道와 人道의 합일의 경지에 도달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니 청운의 뜻을 가진 호걸들은 모두 장사꾼과 낚시꾼들 속으로 숨게 되었습니다. 좌중에 있는 여러 영민하고 사리에 밝은 현자들은 모두 청명한 시대에 벼슬하지 않고 사방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吾希風廣成,¹⁷⁾ 蕩漾浮世,¹⁸⁾ 素受寶訣,¹⁹⁾ 爲三十六帝之外臣.²⁰⁾ 卽四明逸

- 17) 希風: 풍모를 앙모하다. 《後漢書》 권97 <黨錮傳序>의 “전국에 풍모를 숭상하는 기류가 흘러 퍼져, 결국에는 모두 서로 표방하였다(海內希風之流, 遂共相標榜.)”에 대하여 李賢은 “希는 바람이다(希, 望也.)”라고 주를 달았다. ○廣成: 신선 廣成子를 말한다. 葛洪의 《神仙傳》 권1에 “광성자는 옛 선인이다. 崆峒山의 석실에 살았다. 黃帝가 이 소식을 듣고 그곳에 찾아갔다. ‘감히 지극한 도를 묻고자 합니다’라고 하니. 광성자가 답하기를 ‘지극한 도의 정수는 그욕하고 아득한 것이니, 보려고도 하지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마시오. …… 그대 형체를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대의 정기를 흔들리게 하지 말아야 장생할 수 있소. ……나는 그 하나를 지키고 그 조화에 처했기 때문에 1,200년 동안이나 늙지 않았소’(廣成子, 古之仙人也. 居崆峒之山, 石室之中. 黃帝聞而造焉. 曰: ‘敢問至道之要?’ ……廣成子答曰: ‘至道之精, 杳杳冥冥, 無視無聽. ……無勞爾形, 無搖爾精, 乃可長生. ……我守其一, 以處其和, 故千二百歲而未嘗衰.’)”라고 하였다. 일설에는 廣成子가 老子的 별칭이라고 여겨, 《神仙傳·老子》에서는 老子를 일컬어 “黃帝 시대에는 廣成子이고, 顓頊 시대에는 赤精子이다(黃帝時爲廣成子, 顓頊時爲赤精子.)”라고 하였다. 李白의 <古風·其二十五>에서는 “광성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세상을 떠나 무궁의 문으로 들어가리라(歸來廣成子, 去入無窮門.)”라고 하였다.
- 18) 浮世: 인간세상. 인간세상은 浮沈과 聚散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름. 阮籍 <大人先生傳>의 “인간 세상에 소모하며, 도와 더불어 함께 이루어(逍遙浮世, 與道俱成.)”에 그 용례가 있다.
- 19) 寶訣: 도가의 수련 祕訣.
- 20) “爲三十六帝之外臣” 일구: “道書(여주: 도교의 가르침을 쓴 책)”를 고찰하면, 신선이 사는 세계에는 36重在 있는데, 각 重天에는 득도한 천신이 통할한다.(《雲笈七籤》 卷21) 《魏書·釋老志》에 “천지 사이에 36天이 있고, 중간에 36宮이 있고, 궁에는 하나의 주재자가 있다. 가장 높은 자를 무극지존, 다음을 대지진존, 다음을 천복지제음양진존, 다음을 흥정진존이라 한다(二儀之間有三十六天, 中有三十六宮. 宮有一主. 最高者無極至尊, 次曰大至眞尊, 次天覆地載陰陽眞尊, 次洪正眞尊.)”라고 하였다. ○外臣: 方外之臣. 즉 은거하면서 출사하지 않는 사람. 《南齊書·明僧紹傳》에 “齊의 太祖(蕭道成)가 明慶符에게 말하길, ‘그대의 장형은 은일을 고상하게 여겼으니, 또한 요의 외신이다(太祖謂慶符曰: ‘卿兄高尚其事, 亦堯之外臣.’)”라고 하였다. (唐)任華 <寄李白>의 “소리 높여 노래하고 크게 웃으며 관문을 나서니, 또한 동산으로 향하여 외신이 되고자 하네(高歌大笑出關去, 且向東山爲外

老賀知章, 呼余爲謫仙人,²¹⁾ 蓋實錄耳.²²⁾ 而嘗採姮女於江華,²³⁾ 收河車於清溪, 與天水權昭夷服勤爐火之業久矣.²⁴⁾

臣.)”, 白居易 <遊豐樂招提佛光三寺>의 “漢代에는 黃綺(역주: 商山四皓 중의 夏黃公·綺裏季)를 포용하여 은사로 삼고, 요는 허유를 놓아주고 외신으로 삼았네(漢容黃綺爲連客, 堯放巢由作外臣.)” 및 李贄 <藏書·世紀列傳總目後論>의 “외신이란 은거하는 신하다. 천하가 혼란하면 현인은 은거하기 때문에 외신으로 일생을 마치게 된다(外臣者隱處之臣也. 天下亂則賢人隱, 故以外臣終焉.)” 등에 그 용례가 있다.

- 21) “卽四明逸老賀知章”이구: 이백의 <對酒憶賀監二首并序>·<對酒憶賀監二首>의 내용을 가리킨다. <對酒憶賀監二首并序>에 “태자빈객 하공은 장안에 있는 자극궁에서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천상에서 귀양 온 신선이라 하였다. (그때 그는) 허리에 찬 금거북을 풀어 술과 바꿔서 즐겁게 마셨는데, 그가 세상을 뜬 뒤 술잔을 앞에 두고 슬퍼져서 이 시를 짓는다(太子賓客賀公於長安紫極宮一見余, 呼余爲謫仙人, 因解金龜換酒爲樂, 悵然有懷, 而作是詩.)”라고 하였다. <對酒憶賀監> 첫 수에 “사명산에 광객 있었으니, 풍류가 넘치는 하지장일세. 장안에서 한 번 보고는 나를 귀양 온 신선이라 불렀지. 그 옛날 술을 좋아하던니, 도리어 소나무 아래의 먼지 되었네. 금거북으로 술 바꾸던 일, 돌이켜 생각하니 눈물이 손수건 적시네(四明有狂客, 風流賀季眞. 長安一相見, 呼我謫仙人. 昔好杯中物, 今爲松下塵. 金龜換酒處, 卻憶淚沾巾.)”라고 하였고, 그 둘째 수에서는 “광객이 사명산으로 돌아갈 때, 산음 사는 도사들 맞이했네. 勅命으로 鏡湖의 물 하사하니, 그대 덕으로 누대와 못 영화로웠네. 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옛집만 남아서, 부질없이 연꽃만 피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아득하기 꿈만 같으니, 처량하게 나의 마음 상심하게 하네(狂客歸四明, 山陰道士迎. 敕賜鏡湖水, 爲君臺沼榮. 人亡餘故宅, 空有荷花生. 念此杳如夢, 淒然傷我情.)”라고 하였다.
- 22) 實錄: 실제로 부합하는 기록.
- 23) “而嘗採姮女於江華”이구: 도교에서 단약을 만들 때 수은을 ‘姮女’라고 하고, 납을 ‘河車’라고 한다. <周易·參同契> 中篇에 “강위의 姮女가 영험하면서 가장 신령하니 불을 얻으면 날아가서 티끌이 보이지 않는다(河上姮女, 靈而最神. 得火則飛, 不見埃塵.)”라고 하였다. <周易·參同契> 上篇의 “陰[납]과 陽[수은]이 조제될 때, 玄[수은]은 黃牙[수은이 鉛花를 함유한 것]를 함유하고, 오색을 가진 金[鉛을 의미]은 수은을 만드는 주가 되니, [물에 속하게 되어 붉은 배(丹船)를 실을 수 있어 車乘과 같아] 북방의 河車이다(陰陽之始, 玄含黃牙. 五金之主, 北方河車.)”에 대하여 彭曉는 “북방 하거는 검고 물을 낳는다. 아래 문장으로 고찰하건대, 바로 납을 일컫는다(北方河車, 黑而生水也. 以下文考之, 正謂鉛耳.)”라고 주를 달았다. ○江華: 당나라 때 道州에 속한 江華郡. 지금 湖南省 江華瑤族自治縣에 있다. 詹鍇는 <李白詩文繫年>에서 “이백의 발자취가 일찍이 道州에 이르지 않은 듯하니, 江華 두 글자는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였다. ○清溪: 王琦는 “池州 秋浦縣에 있다(在池州秋浦縣.)”라고 하였다. 지금의 安徽省 貴池縣이다. 이백의 <獨酌清溪石上寄權昭夷>에도 나온다.
- 24) 天水: 郡名. <新唐書·宰相世系五下>의 “權씨는 子姓(역주: 殷, 商 제왕 가족의 성)에서 나왔으며 은나라 무왕의 후손으로 權에 봉해졌다.……진이 초를 멸망시키자, 隴西로 大姓을 옮기고 天水에 의거해서 살았다(權氏出自子姓, 商武丁之裔孫, 封於權. ……秦滅楚, 遷大姓於隴西, 因居天水.)”에 근거하면, 天水는 權昭夷의 祖籍이다. ○服勤爐火之業: 연단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힘쓰다. ○服: 종사하다.

<校記>

[希風]: ‘希’는 《全唐文》에서 ‘稀’로 되어 있는데, 詹鐸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蕩漾]: ‘漾’은 《文苑英華》와 《唐文粹》에서 ‘養’으로 되어 있는데, 詹鐸은 서로 통하는 글자라고 한다.

[江華]: ‘華’는 陸本²⁵⁾에서는 ‘革’으로 되어 있는데, 詹鐸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나는 신선 廣成子의 풍모를 앙모합니다. 그는 인간세상을 이리 저리 다니면서 일찍이 도가수련의 비결을 받아 신선세계 삼십육 天帝의 外臣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산의 狂客 賀知章은 나를 천상에서 귀양살려 온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대체로 실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江華에서 수을 채취하여 연단하였고, 淸溪에서 납을 거두어서 연단하였으며 天水의 權昭夷와 더불어 화로에서 연단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힘쓴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之子也, 冲恬淵靜, 翰才峻發.²⁶⁾ 白每一篇一扎, 皆昭夷之所操.²⁷⁾ 吁! 捨我而南, 若折羽翼. 時歲律寒苦,²⁸⁾ 天風枯聲.²⁹⁾ 雲帆涉漢,³⁰⁾ 罔若絕電.³¹⁾ 舉目四

25) 明 正德14年(서기 1519년)에 陸元다가 간행한 《李翰林集》 10卷.

26) 之子: 이 사람. 之는 이에 해당. 子는 옛날에 사람에게 대한 존칭. 《詩經·周南·桃夭》의 “이 처녀 시집가면, 그 집안을 화순하게 하겠도다(之子于歸, 宜其室家.)”에 그 용례가 있다. 여기에서는 權昭夷를 가리킨다. ○冲恬: 화평하고 담박하다. ○淵靜: 깊고 고요하다. 《莊子·天地》의 “옛날 천하를 다스려 양육한 자는, 욕심이 없어도 천하가 만족하였고, 무위라도 만물이 변화되었고, 연못처럼 깊고 고요해도 백성이 안정되었다(古之畜天下者, 無欲而天下足, 無爲而萬物化, 淵靜而百姓定.)”에 그 용례가 있다. ○翰才: 文才 ○峻發: 문재가 민첩하다. 牛寶形의 책에서는 “크게 드러나다, 크게 발하다(大顯, 大發)”라고 하였다. (《李白文選》, 139쪽.) 《文心雕龍·神思》의 “저 문학 사유가 민첩한 사람은 마음속에 창작의 주요 방법을 총괄하여 생각에 앞서 민첩하게 붓을 잡고, 창작의 기미에 응하여 곧바로 결단을 내린다(若夫駿發之士, 心總要術, 敏在慮前, 應機立斷.)”에 그 용례가 있다.

27) “白每一篇一扎”이구: 이 두 구는 이백의 문장이 權昭夷의 계발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操: 잡다. 집필하다.

28) 歲律: 고대의 12악률은 12개월과 상응한다. 때문에 ‘歲律’이라 하였다. 陽律은 黃鍾·太簇·姑洗·蕤賓·夷則·亡射, 陰律은 大呂·夾鍾·中呂·林鍾·南呂·應鍾이다. 《禮記·月令》에 “계추의 달…… 그 음은 商이고, 律은 無射에 해당하고, 그 수는 九, 그 맛은 辛이

顧, 霜天崢嶸,³²⁾ 銜杯敘離,³³⁾ 羣子賦詩以出餞. 酒仙翁李白辭.³⁴⁾

<校記>

[翰才]: 《唐文粹》에서는 ‘才翰’으로 되어 있다.

[峻發]: 《唐文粹》에서는 ‘駿發’로 되어 있다.

[一扎]: ‘扎’이 咸本³⁵⁾ · 郭本³⁶⁾ · 《文苑英華》 · 《唐文粹》 · 王本³⁷⁾ · 《全唐文》에서는 ‘札’로 되어 있다.

[羽翼]: ‘羽’가 《文苑英華》에서는 ‘雨’로 되어 있는데, 이 판본의 주석에서 “集에는 羽로 되어 있다(集作羽.)”라고 하고 있다. 詹鍔은 ‘雨’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寒苦]: ‘苦’가 《唐文粹》 · 《全唐文》에서는 ‘色’으로 되어 있다. 《文苑英華》에서는 ‘甚’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본의 주석에서는 “集에서는 苦로 되어 있고, 《唐文粹》에서는 色으로 되어 있다(集作苦, 文粹作色.)”라고 하였다.

다……이 달에서 서리가 처음 내리기 시작하여 백공이 쉬게 된다(季秋之月, ……其音商, 律中無射, 其數九, 其味辛. ……是月霜始降, 則百工休.)”라고 하였다.

29) 枯聲: 가을의 쌀쌀한 소리.

30) 雲帆: 하얀 돛. 구름 돛. 李白 <行路難> 其一의 “장풍을 타고 큰 파도 깨뜨릴 기회가 오거든, 곧장 구름 돛 걸고 창해를 건너려다(長風破浪會有時, 直掛雲帆濟滄海.)에 그 용례가 있다. ○漢: 은하수. 《詩經·小雅·大東》의 “하늘에 은하수 있으니, 봄에 또한 빛이 있네(維天有漢, 監亦有光.)”에 그 용례가 있다.

31) 罔若絕電: 속도가 매우 빠름을 비유. 權昭夷의 배가 매우 빠르게 떠나감, 이로써 슬퍼하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罔’에 대해 “빛이 있는 모양”, “새가 날아가는 모양” 두 설이 있다. 《文選》 권12 木華<海賦>의 “望濤遠決, 罔然鳥逝.”에 대하여 李善은 “蒼頡篇”을 인용하여 “罔은 빛이다(罔, 光也.)”라고 주를 달았고, 張銑은 “罔은 새가 나는 모양이다(罔, 鳥飛貌.)”고 주를 달았다. ○絕電: 순식간에 지나가는 번개. 속도가 아주 빠름을 비유. 鮑照 <行路難>의 “사람의 삶이란 홀연히 지나가는 것이 마치 순식간의 번개 같네(人生倏忽如絕電.)”에 그 용례가 있다.

32) 霜天: 서리 내리는 늦가을 하늘. 薛道衡 <出塞>其二의 “만추의 하늘에는 기러기 소리도 끊겨서라(霜天斷雁聲.)”에 그 용례가 있다. ○崢嶸: 하늘이 높고 공황하다.

33) 銜杯: 술잔을 입에 대다. 술을 마시다. ○敘離: 이별을 말하다.

34) 謫仙翁: 이백 자칭. ○辭: 글이나 말로 표현하다.

35) 明鮑松이 編한 正德八年(서기 1513년) 自刻本 《李杜全集》 83권 중의 《李翰林集》 30卷.

36) 《四部叢刊》을 영인한 郭雲鵬의 《分類補注李太白詩》 30卷.

37) 乾隆間(서기 1736년-1796년)에 출판된 王琦가 주석을 한 《李太白文集》 36卷 및 1977년 中華書局的 조판본 《李太白全集》.

[枯聲]: ‘枯’가 《文苑英華》에서는 ‘苦’로 되어 있는데, 이 판본의 주석에서는 “集에서는 枯로 되어 있다(集作枯).”라고 하였다.

[絶電]: ‘電’이 송측본에서 원래 ‘雷’로 되어 있는데, 詹鏞이 다른 판본에 모두 ‘電’으로 되어 있어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電’으로 고쳤다.

[羣子]: 《唐文粹》·《文苑英華》·《全唐文》의 ‘羣子’ 위에는 ‘而’자가 있다.

[酒仙翁]: ‘酒’는 《全唐文》에서는 ‘謫’으로 되어 있다.

權昭夷 그대의 성품은 화평하시고 담박하시며 깊고 고요하시며, 문재가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저 이백이 쓴 매 편의 시문들은 모두 그대로부터 계발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대께서 나를 버리고 남쪽으로 가신다니, 마치 날개가 꺾여나간 듯합니다. 지금 바야흐로 季秋 九月이고 律은 無射에 해당하고, 천기는 차갑고, 바람이 불어 마른 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얀 돛배가 구름을 헤치며 은하로 들어가는데, 섬광처럼 빠르게 떠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니, 가을 하늘만 높고 공활할 뿐입니다. 술잔 머금고 이별의 감정을 서술하는데, 못 현인들이 시를 지어 전송합니다. 酒仙 李白이 그대를 위해 씁니다.

2.2 春於姑熟送趙四流炎方序³⁸⁾

(봄에 姑熟에서 趙炎이 남방 더운 지역으로 좌천되어 가기에 전송하며 쓰노라)

白以鄒魯多鴻儒,³⁹⁾ 燕趙饒壯士,⁴⁰⁾ 蓋風土之然乎! 趙少翁才貌瓌雅,⁴¹⁾ 志

38) 姑熟: 지금의 安徽省 當塗縣. ○趙四: 當塗縣의 縣尉였던 趙炎. ○炎方: 더운 남쪽 지방. 주로 현재의 광둥성 일대를 가리킨다.

39) 鄒魯: 鄒는 맹자가 태어난 곳, 魯는 공자가 태어난 곳. 때문에 옛날부터 ‘鄒魯’로써 文教가 흥성한 곳을 말하는 대칭으로 사용하였다. 《莊子·天下》의 “詩·書·禮·樂에 기록된 것에 대해 鄒魯의 선비, 띠를 두른 선생 중에서 밝게 아는 이가 많다(其在於詩·書·禮·樂者, 鄒魯之士, 縉紳先生多能明之.)”에 그 용례가 있다. ○鴻儒: 大儒, 지식이 깊고 넓은 사

氣豪烈. 以黃綬作尉,⁴²⁾ 泥蟠當塗,⁴³⁾ 亦雞棲鶴籠, 不足以窘束鸞鳳耳.⁴⁴⁾

<校記>

[제목]: ‘熟’이 咸本에서는 ‘孰’으로 되어 있다.

[燕趙]: ‘趙’가 《文苑英華》에서는 ‘魏’로 되어 있다. 이 판본의 주석에서는 “集에서는 趙로 되어 있다(集作趙.)”라고 하였다.

[風土]: ‘土’에 대해 《文苑英華》의 주석에서는 “集에서는 俗으로 되어 있다(集作俗.)”라고 되어 있다.

[少翁]: ‘翁’이 《文苑英華》에서는 ‘公’으로 되어 있다. 이 판본의 주석에서는 “集에서는 翁으로 되어 있다(集作翁.)”라고 하였다. 《全唐文》에서는 ‘公’으

담. 王充 《論衡·超奇》의 “경서 한 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는 儒生이고, 고금을 널리 살필 수 있는 자는 通人이고, 자료를 취사하여 글을 지어 전하며 상서하는 奏記 문체를 쓸 수 있는 자는 文人이고, 사고를 정밀하게 하고 문장을 짓고 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자를 鴻儒라고 한다. 때문에 유생은 속인을 넘어서고, 통인은 유생보다 우세하고, 문인은 통인을 넘어서고, 효유는 문인을 초월한다.(能說一經者爲儒生; 博覽古今者爲通人; 采摭傳書以上書奏記者爲文人; 能精思著文連結篇章者爲鴻儒. 故儒生過俗人, 通人勝儒生, 文人逾通人, 鴻儒超文人.)”에 그 용례가 있다.

40) 燕趙: 나라 이름. 각각 전국칠웅 가운데 하나. 燕은 지금의 河北 북부와 遼寧 서단에 있었다. 趙는 지금의 河北 남부, 山西 북부에 있었다. 두 나라 모두 진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옛날부터 燕趙는 비분강개하는 선비가 많았다고 알려졌다. ○饒: 많다.

41) 趙少翁: 趙炎. ○才貌瓌雅: 재주와 모습이 훌륭하고 고아하다.

42) 黃綬: 황색 인끈. 현위 등 낮은 관원이 인장의 손잡이 부분에 매는 황색의 끈. 《漢書·百官公卿表》의 “무릇 관리의 녹봉이 2000석 이상에 가까우면 모두 은인장에 청끈을 매고 ……600석 이상에 가까우면 모두 동인장에 흑끈을 매고 ……200석 이상이면 모두 동인장에 황끈을 맨다(凡吏秩比二千石以上, 皆銀印黃綬 ……秩比六百石以上, 皆銅印黑綬 ……比二百石以上, 皆銅印黃綬.)”에 그 용례가 있다.

43) “泥蟠當塗”이구: 이 구는 趙炎이 현위라는 직위에 있음을 말한다. ○泥蟠: 진흙 속에 몸을 감고 엎드려 있다. 곤궁에 처해 있거나 혹은 벼슬에서 뜻을 얻지 못함을 비유. 《文選·班固·答賓戲》의 “때문에 저 진흙 속에 몸을 엎드렸다 하늘로 날아가는 것은 응용과 같은 신이다(故夫泥蟠而天飛者, 應龍之神也.)”에 그 용례가 있다. ○當塗: 지금의 安徽省 馬鞍山市 當塗縣으로 丹陽, 太平府로도 불리었다.

44) “亦雞棲鶴籠”이구: 닭이 깃들고 학을 기를만한 곳은 난새와 봉황과 같은 인제가 재능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雞棲: 닭이 깃드는 곳.棲는 새가 살다, 깃들다. 《시경·王風·君子于役》의 “닭이 헛대에 깃들어 있네(雞棲於暵.)”에 그 용례가 있다. ○鶴籠: 학을 가두어 기르는 곳.籠은 새 등을 가두어 기르는 鳥籠. “雞棲鶴籠”은 현위라는 직책은 단지 닭이 깃들고 학을 가두어 기르는 곳일 뿐이라는 의미. ○窘束鸞鳳: 난새와 봉황을 곤궁하게 하고 구속하다. ○鸞鳳: 조임을 비유한다.

로 되어 있다.

[瓊雅]: ‘雅’가 《文苑英華》에서는 ‘雄’으로 되어 있다. 이 판본의 주석에서는 “集에서는 雅로 되어 있다(集作雅.)”라고 하였다.

[亦雞棲] 《文苑英華》에는 ‘亦’아래에 ‘猶’자가 있다.

[鸞鳳]: ‘鳳’이 咸本·陸本·郭本에서는 ‘凰’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본들의 주석에서는 “다른 판본에서는 鳳으로 되어 있다(一作鳳)”라고 하였다. 劉本⁴⁵⁾에서는 ‘凰’으로 되어 있다.

저 이백은 鄒나라·魯나라는 大儒가 많고, 燕나라·趙나라는 壯士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대개는 풍토가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겠지요! 當塗의 縣尉 趙炎께서는 재주와 모습이 훌륭하고 고아하고, 뜻과 기개가 원대하고 호방하지만, 황색 끈으로 인장을 매는 낮은 관직의 縣尉에 계시니, 이것은 當塗의 진흙 속에 몸을 감고 엎드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닭장과 조롱과 같은 당도의 현위라는 직책은 난새와 봉황을 구속할 수 없을 뿐입니다.

以疾惡抵法, 遷于炎方.⁴⁶⁾ 辭高堂而墜心,⁴⁷⁾ 指絕國以搖恨.⁴⁸⁾ 天與水遠, 雲連山長. 借光景於頃刻, 開壺觴於洲渚.⁴⁹⁾ 黃鶴曉別, 愁聞命子之聲,⁵⁰⁾ 青楓暝色,

45) 明萬曆40年(서기 1612년) 劉世教의 《合刻分體李杜全集》 중 《李翰林全集》 42卷.

46) “以疾惡抵法”이구: 조염이 악한 사람을 미워하여 형법에 저촉되었음을 말한다. ○疾: 나쁜 사람, 나쁜 일을 질시하다, 미워하다. ○抵法: 형법에 저촉되다. ○遷: 좌천되다.

47) 高堂: 부모. ○墜心: 근심하다. 슬퍼하다. 江淹 《恨賦》의 “때로는 고립무원의 신하가 슬프게 눈물 흘리고, 중시 받지 못한 서출은 애통해하네(或有孤臣危涕, 孽子墜心.)”에 그 용례가 있다.

48) 絕國: 아주 먼 나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史記·衛將軍驃騎列傳》의 “이전에 아주 먼 나라로 출사하여 세운 공적이 있어, 張騫을 博望侯에 봉하였다(因前使絕國功, 封騫博望侯.)”에 그 용례가 있다. ○搖恨: 질시하여 원망하다. 郁賢皓는 “심신이 불안하여 통한하다”라고 하였다. (《新譯李白文集》, 206쪽)

49) “借光景於頃刻”이구: 짧은 시간을 내어 강가에 전별연을 마련함을 말한다. ○洲渚: 강이나 물 가운데 모래 등이 쌓여 이루어진 육지. 이곳에서는 전별하는 곳을 말한다.

50) “黃鶴曉別”이구: 郁賢皓는 “아침에 이별함에 슬프게 황학의 울음소리를 듣다”(《新譯李白文集》, 206쪽)라고 풀이하였다. ○命子之聲: 詹鏐, 郁賢皓는 모두 左思의 <蜀道賦> “白龍命鼉”에 대한 李善의 注 “命은 呼이다(命, 呼也.)”에 근거, 이를 ‘황학의 울음소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牛寶彤의 책에서는 ‘황제의 명을 받아 조염이 비탄하는 소리’로 보았다. 牛寶彤

盡是傷心之樹.⁵¹⁾

<校記>

[墜心]: ‘墜’가 《文苑英華》에서는 ‘墮’로 되어 있다. 이 판본의 주석에서는 “集에서는 墜로 되어 있다(集作墜.)”라고 하였다.

[以搖恨]: ‘以’가 《文苑英華》에서는 ‘而’로 되어 있다. 이 판본의 주석에서는 “集에서는 以로 되어 있다(集作以.)”라고 하였다.

[借光景]: ‘借’가 《全唐文》에서는 ‘惜’으로 되어 있다.

趙縣尉께서는 나쁜 세력을 질시하다가 형법에 저촉되어, 남쪽 무더운 곳으로 좌천되었습니다. 부모와 이별하시면서 애통해하셨고, 아주 먼 지역으로 떠나시면서 불안해하시고 원통해하셨습니다. 하늘은 강물과 더불어 아득하고, 구름은 산에 이어져 길게 흘러갑니다. 짧은 시간을 내어서 강가에 전별연을 마련하였습니다. 황학이 새벽에 이별하는데, 그 우는 소리가 구슬피 들렸습니다. 푸른 단풍나무는 황혼 빛에 완전히 애달픈 나무가 되었습니다.

然自吳瞻秦,⁵²⁾ 日見喜氣.⁵³⁾ 上當攬玉弩, 摧狼狐, 洗清天地, 雷雨必作.⁵⁴⁾

의 책에서는 “‘命子’는 ‘황제가 전한 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 구는 조염이 자신이 이미 조정의 명령을 받아 좌천되어 감으로써 느끼는 극도의 비탄을 이백이 들은 것을 가리킨다. 黃鶴은 전설에서 신선이 타는 학으로, 崔浩의 <黃鶴樓>에서 ‘옛 사람 이미 황학을 타고 떠나, 이곳엔 쓸쓸히 황학루만 남았네, 황학은 한번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빈 하늘엔 흰 구름만 유유히 떠도는구나(人已乘黃鶴去, 此地空餘黃鶴樓, 黃鶴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라고 하였다. 이백과 조염은 모두 신선세계를 찾고 도를 배웠다. 게다가 새벽에 이별을 했기 때문에 ‘황학이 새벽에 이별을 한다(黃鶴曉別)’고 하였다.”(《李白文選》, 146쪽)라고 풀이하고 있다.

51) “靑楓暝色”이구: 푸른 단풍이 황혼 속에서 상심하는 나무로 변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별의 아픔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구는 <楚辭·招魂>의 “강물은 넘실넘실 강 언덕엔 단풍나무 있는데, 저 멀리까지 바라보니 봄마져 가슴 아프게 하네(湛湛江水兮上有楓, 目極千里兮傷春心.)”에서 취한 것이다. ○暝色: 해가 저물어 가다. 황혼의 하늘빛.

52) 吳: 옛날 나라 이름. 當塗는 吳 땅에 속했다. ○瞻: 멀리 바라보다. ○秦: 長安을 의미한다.

53) 日見喜氣: 날마다 당나라가 진흥하는 기상을 보다. “日見喜氣”에 대하여 牛寶彤의 책에서는 “안사의 난이 막 일어났을 때, 현종은 일찍이 制書(역주: 황제의 명을 적은 문서의 하나)를 널리 알리고 친히 줄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몇 가지 군사조치를 취하였는데, 수도에

冀白日迴照,⁵⁵⁾ 丹心可明.⁵⁶⁾ 巴陵半道,⁵⁷⁾ 坐見還吳之棹.⁵⁸⁾ 令雪解而松柏振色,
氣和而蘭蕙開芳.⁵⁹⁾ 僕西登天門,⁶⁰⁾ 望子於西江之上.⁶¹⁾

<校記>

[喜氣]: ‘氣’가 송축본에서는 원래 없었는데, 다른 판본에는 모두 있어 詹鍈이 첨가하였다.

[摧狼狐]: ‘摧’가 송축본에서는 원래 ‘催’로 되어 있는데, 詹鍈이 다른 판본들에 ‘摧’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고쳤다.

[迴照]: ‘迴’가 송축본에서는 원래 없었는데, 다른 판본에는 모두 있어 詹鍈이 첨가하였다.

[令雪解]: ‘令’이 《文苑英華》에서는 ‘今’으로 되어 있다.

서 병사를 육성하고 있던 隴右 절도사 哥舒翰을 병마 부원수로 임명하여 8만의 대병을 이끌고 潼關을 지키도록 하고, 북방 절도사 郭子儀, 하동절도사 李光弼을 河北으로 출병시켜 반란군의 후방을 공격하게 하여 史思明을 대패시켰다. 이와 동시에 常山태수 顏杲卿, 平原태수 顏真卿을 시켜 군대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고 魏郡을 공략하게 하였다. 군대의 사기가 크게 올랐으며, 河北의 여러 지역이 호응하였다. 天寶15년 초봄에 관병이 패전을 승전으로 돌려놓았다. 형세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때문에 ‘日見喜氣라 했다’고 하였다. (《李白文選》, 147쪽.)

- 54) “上當攬玉弩”사구: 이 네 구는 황제가 친히 적을 토벌하는 무기를 잡고서 안록산의 반란을 토벌하여 천지를 다시 맑게 하고 천하를 크게 사면하는 것을 말한다. ○上: 현종. ○攬: 잡다. 탈취하다. 본래는 새가 발톱으로 먹이를 제빠르게 취함을 말한다. ○玉弩: 옥으로 장식한 쇠뇌. 《尚書·帝命驗》에서 “하늘의 북이 울리니, 옥노가 발사되어, 천하를 놀라게 한다(天鼓動, 玉弩發, 驚天下).”라고 하였다. ○摧: 꺾다. 무너뜨리다. ○狼狐: 안록산 등의 반란군. ○洗清天地: 천지를 씻고 맑게 하다. 즉 천지를 안정시키고 태평스럽게 하다. ○雷雨必作: 천하를 크게 사면하다. 《易·解卦》에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것이解니, 君子가 이러한 象을 보고 본받아서 허물을 용서하고 죄를 너그럽게 한다(雷雨作, 解, 君子以赦過宥罪).”라고 하였다.
- 55) 冀: 바라다. 희망하다. ○白日: 태양. 즉 제왕을 비유한다.
- 56) 丹心: 충貞의 마음.
- 57) 巴陵: 岳州. 天寶원년에 巴陵郡이 되었고, 乾元원년에 다시 岳州가 되었다. 그 관공소가 지금의 湖南省 岳陽市에 있다.
- 58) 坐: 장차.
- 59) “令雪解而松柏振色”이구: 조염의 억울함이 용서되고 해결되어 마음이 펴지고 기쁘게 됨을 형용한다.
- 60) 僕: 자신. 나. ○天門: 산 이름. 천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當塗 서남의 장강 양안에 있는 천문산을 가리킨다.
- 61) 西江: 옛날에 金陵에서 九江에 이르는 長江을 西江이라 하였다.

[西江]: ‘西’가 《文苑英華》와 《全唐文》에서는 ‘滄’으로 되어 있다. 두 판본 모두 주석에서 “集에서는 西로 되어 있다(集作西.)”라고 하였다.

그러나 뭇 땅에서 멀리 秦 땅을 바라보면, 매일 당나라가 진흥하는 기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황상께서는 친히 弩弓을 잡으시고 이리와 같은 안록산의 반군을 토벌하시니 천지를 맑게 씻어내시고 천하를 사면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군왕의 은택이 햇빛처럼 비추어져 그대의 충정의 마음이 소명되어 죄가 씻기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좌천되어 岳州로 가는 도중에, 장차 그대가 뭇 땅 當塗로 돌아오는 배가 나타날 것입니다. 趙 縣尉의 억울한 사건이 눈 녹듯이 해결되어 송백이 푸른색을 더욱 떨치고, 날씨가 온화해져 난초와 혜초가 향기를 더욱 발하였으면 합니다. 저는 서쪽으로 天門山에 올라, 그대가 長江 위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吾賢可流水其道, 浮雲其身,⁶²⁾ 通方大適, 何往不可?⁶³⁾ 何戚戚於路岐哉!⁶⁴⁾

<校記>

[大適]: ‘適’이 咸本에서는 ‘道’로 되어 있다. 詹鐸은 ‘道’가 ‘適’에 비해 의미가 심장하다고 한다.

[何戚戚]: ‘何’가 校注本에서는 ‘何必’로 되어 있는데, 詹鐸은 틀린 것이라고 한다.

[路岐]: 《文苑英華》에서는 ‘岐路’로 되어 있다. 이 판본의 주석에서는 “集에서는 路岐로 되어 있다(集作路岐.)”라고 하였다.

62) “吾賢可流水其道”이구: 자연에 순응하여 만나는 것에 따라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吾賢: 조엄.

63) 通方: 정치를 하는 도에 통달하다. ○大適: 도처에 적용할 수 있다. ○何往不可: 어디를 가더라도 되지 않으리오? 반어사를 사용하여 어디를 가더라도 모두 된다는 것을 강조.

64) 戚戚: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論語·述而》의 “군자는 평온하고 너그럽지만, 소인은 늘 근심에 싸여 있다(君子坦蕩蕩, 小人長戚戚.)”에 그 용례가 있다.

나의 賢友이신 조 현위께서는 자기의 길을 마치 눈 앞 강물처럼, 자신을 뜬 구름처럼 생각하시고, 정치의 도에 통달하여 도처에 적응할 수 있으니, 어디를 가더라도 되지 않으리오? 어찌 기로에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리오!

3. 해설 및 결론

<金陵與諸賢送權十一序>은 이백이 天寶14년(755)에 벗 權昭夷가 금릉을 떠나 남쪽으로 가는 것을 진송하는 문장이다. 牛寶彤의 책에서는 이 산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작자는 序 가운데 權昭夷의 담박하며 허정한 도가적 풍모와 문학적 재능을 극력 칭찬하고 權昭夷와 도가를 좇아 鍊丹한 우정 및 시문창작에서 받은 가르침을 서술하였다. ……또한 序에서 옛 부터 재덕이 출중한 사람의 조정 등용여부는 時勢나 天運에 있는데, 唐代에는 ‘靑雲豪士’와 ‘四座明哲’이 벼슬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황제가 도교를 숭상하고 無爲의 통치를 하여 이미 天人合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백이 지금까지 공격한 ‘주옥으로 미녀의 노래와 웃음을 사지만, 현능한 인재에게는 지계미와 겨를 쓰는구나(珠玉買歌笑, 糟糠養賢才)’의 관점과 비교할 때 매우 다른 것이다.”⁶⁵⁾

이 서문은 47구 226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분류하면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단락(斯高柄秦~在大運爾)은 역사상의 3개의 사례를 들어 군신의 만남은 시기가 있고, 천운에 있음을 말하였다. 제2단락(我君六葉繼聖~皆清朝旅人)은 현종의 시대를 ‘淸平’, 그의 정치를 “垂拱而天下治”로 찬양하였다. 이로써 ‘靑雲豪士’, ‘明哲’은 모두 민간에 숨어 재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표면상 칭찬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풍자하는 말이다.”⁶⁶⁾ 제

65) 牛寶彤, 《李白文選》(北京: 學苑出版社, 1989), 135쪽.

66) 詹鏞,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4071쪽.

3단락(吾希風廣成~與天水權昭夷服勤爐火之業久矣)은 도가를 배워 연단하는 상황 및 權昭夷와의 우정을 서술하였다. 제4단락(之子也~酒仙翁李白辭)은 권소이 성품의 '沖恬淵靜', 문재의 '峻發', 두 사람의 깊은 우정, 이별을 아쉬워하는 감정, 시를 지어 전송하고 이백이 서를 짓는 상황을 서술하였다.

이 서문은 벗을 송별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지만, 說理·敘事·抒情의 구조와 배치에 따라 전체 문장을 전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春於姑熟送趙四流炎方序>은 현종 천보15년(756) 봄, 나쁜 세력을 질시하다가 형법에 저촉되어 남쪽 무더운 곳으로 좌천되는 當塗 縣尉 趙炎을 송별하는 문장이다. "당시 이백은 '돌아오니 먹고 살만한 일조차 없어, 삶은 바람에 굴러다니는 쭉 덩불과 같도다(歸來無產業, 生事如轉蓬.)'⁶⁷⁾의 상황에 직면하여, 현실에 대한 사무치는 감개와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하는 석별의 감정을 품고서 그를 위하여 이 문장을 썼다."⁶⁸⁾

이백은 조염의 재주가 뛰어나지만 낮은 현위의 지위에 있고, 나쁜 세력을 질시하여 형법에 저촉되어 남방의 더운 곳으로 좌천되어 가는 불행에 대하여 분개를 표현하고, 그 벗과 이별하는 슬픔 및 그에 대한 동정의 감정을 충만시켰다. 또한 좌천되어 가는 도중에 조정에서 조염을 사면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여 그에 대한 깊은 위로와 우정을 드러내었다.

이 서문은 40구 209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분류하면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락(白以鄒魯多鴻儒~不足以窘束鸞鳳耳)은 "鄒·魯는 大儒가 많고, 燕·趙는 壯士가 많다"는 것으로 趙炎이 재주와 모습이 훌륭하고 고아하고, 뜻과 기개가 원대하고 호방하지만, 그가 當塗의 縣尉라는 낮은 지위에 있음을 "泥蟠當塗", "雞棲鶴籠"로 비유하였다. 그러나 그가 결코 이러한 지위에 장기간 구속되어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난새와 봉황처럼 높이 날아갈 날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두 번째 단락(以疾惡抵法~盡是傷心之樹)은 조염이 나쁜 세력을 미워하다가 남방의 더운 지역으로 좌천되어 가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

67) 이백, <贈從兄襄陽少府皓>.

68) 牛寶彤, 《李白文選》, 144쪽.

한 부모와 이별하고 벗과 헤어지는 마음과 정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세 번째 단락(然自吳瞻秦~望子於四江之上)은 천자가 친히 안록산의 반란군을 평정하고 천하에 대사면을 내리면 조염이 중도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가상하였다. 네 번째 단락(吾賢可流水其道~何戚戚於路岐哉!)은 조염을 위로하며, 그가 정치의 큰 도리에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잘 적응하기 때문에 기로에서 상심할 필요 없다고 하였다.

이 서문은 작자 내면의 진지한 감정이 충일되어 표현되었다. 문장의 정조는 처량하며, 언외에 뜻을 기탁하고 있다. 언어는 간략하지만 뜻은 깊어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金陵與諸賢送權十一序> · <春於姑熟送趙四流炎方序> 두 편 모두 작자의 정치적 좌절과 관계되고, 시대를 풍자하는 의식이 암암리에 깔려있다.

< 參考文獻 >

- 王 琦,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郁賢皓, 《李白叢考》, 陝西: 陝西人民出版社, 1982.
 詹 鏞, 《李白詩文繫年》,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牛寶彤, 《李白文選》, 北京: 學苑出版社, 1989.
 安 旗, 《李白全集編年注釋》, 四川: 巴蜀書社, 1990.
 李 白, 《李太白文集》(宋蜀刻本唐人集叢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詹 鏞,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瞿蛻園·朱金城,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謝育爭, 《李白散文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1998.
 郁賢皓, 《李太白全集校注》, 江蘇: 鳳凰出版社, 2015.
 郁賢皓, 《新譯李白文集》, 臺北, 三民書局, 2017.
 朱金城, <論李白的散文>, 《李白學刊》, 第1輯, 1987.
 辛정수, <李白散文研究>,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Abstract >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Li bai's <I write this as I say farewell to Quan Zhaoyi in Jinling with the many sages> and <I write this as I say farewell to Zhao Yan, who has been banished in springtime from Gushu to the hot region in the south>

Cho, Sungchun · Cho, Deukchang

Until now,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on Li Bai have been focused on poetry. The interest in his proses was relatively small, and the number of translations and annotations, the basis of research, was especially very low. The translation and annotation on Li Bai prose are to be valuable source for the research on Li Bai. Two pieces of Li Bai's proses have been translated and annotated here.

The sentence 'I write this as I say farewell to Quan Zhaoyi in Jinling with the many sages' is a prose written as Li Bai said good-bye to his friend Quan Zhaoyi, who was leaving Jinling, heading south in 755. In this prose, Li Bai highly praises Quan Zhaoyi's candid, Taoistic appearance and literary talents as he also described his friendship and his teachings.

The second prose 'I write this as I say farewell to Zhao Yan, who has been banished in springtime from Gushu to the hot region in the south' is a prose written as Li Bai said good-bye to Zhao Yan, who was exiled to the hot southern region as he infringed the criminal law in 756 due to his jealousy with the bad group of people. Li Bai in this prose expressed his resentment for Zhao Yan's misfortune, as he also expressed his sympathy for Zhao as well as his grief saying good-bye to him.

Both proses are related to the political frustration of the writer, as the spirit of satire on the society back then is covertly present.

Key Words: Translation, Annotation, Li Bai, Prose, Quan Zhaoyi, Zhao Ya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4. 29	2018. 5. 12	2018. 5. 27	2018. 6. 3	2018. 6. 30